
개혁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 는가?

What Does It Mean To Be Reformed?

by

Don Fortner

Copyright 2010

(번역: 박영호)

서론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8

1우리는 거짓 종교, 거짓 교리, 그리고 거짓 예언들을 조심할 것을 반복해서 경고 받는다. 여기서 바울은 거짓 종교 철학과 사람들의 전통, 특히 세상의 기초 밑으로 우리를 되돌려 보내려 하는 자들, 즉 말하자면, 육적인 의식주의와 성찬중시주의와 율법주의에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려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손상 받을 것을 조심하라고 강조한다.

이 경고는 우리 모두가 천연적으로 우상 숭배와 행위의 종교를 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또 주어진다. 당신은 구약에서 얼마나 자주 주께서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결코 어떤 때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의 큰 역사를 상징하는 것들을 손대지 말 것을 경고하였는지 깨달았는가? (필독구절: 출애굽기 20:25-26, 민수기

¹ 이 소책자를 만들게 된 설교들은 1997년 11월 2일, 미국 Kentucky주 Danville에 있는 Grace Baptist Church of Danville에서 Don Fortner 목사에 의해 전해졌다. 소책자는 목사 설교 노트에서 가능한 최소의 변경으로 직접 취해졌다. 이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의도되었고, 오직 그것을 출판 할 것을 많은 수가 요구하였기 때문에 대중에게 제공된다. Danville에서 설교한 원래 메시지의 테이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5:15, 신명기 27:5, 여호수아 8:30-31, 열왕기상 6:7, 역대상 13:9-10).

- **출애굽기 20:25-26**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네가 돌 위로 네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네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 **민수기 5:15** "그때에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게로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 음식 일 에바의 십분의 일을 그녀의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질투의 헌물이요,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불법을 기억나게 하는 헌물이니라."
- **신명기 27:5** "또 거기서 주 네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되 돌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 **여호수아 8:30-31** "그때에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에발 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쇠를 대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다. 그들이 주를 위해 그 위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희생물로 드렸더라."
- **열왕기상 6:7** "그 집은 건축할 때에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집 안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
- **역대상 13:9-10**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비틀거리므로 웃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궤에 손을 대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를 치시매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수 많은 경고들은 단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율법의 전형적이며 의례적인 제도 안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하도록 한 이 제단들과 희생물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운 구원의 모든 예표들이었다. 그것들 위에 도구를 올려 놓거나 그것들과 자신의 것들을 섞어 놓으려고 한 것은 의례적이었으며 그 안에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총체적 부인이었다. 따라서,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기 위하여 그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법, 혹 어느 정도 그에게 좌우되었는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떤 방법이나, 혹 어느 정도가 사람의 의지와 행위와 가치에 좌우되고 결정된다고 추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 부인한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 받을 것이다. 이 소책자를 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내용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의 백성이 섬김다는 것을 확신한다.

아르미니우스주의보다 더 미묘하기 조차하며 다만 치명적이기도 한 종교의 한 가지 형태,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은혜와 함께 행위를 혼합하는 것을 교묘히 조장하는 종교의 한 형태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개혁 신학, 개혁 신앙, 혹은 개혁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개혁파라고 부르는 자들은 은혜의 교리를 믿는 체 하는 자들이라고 전적으로 깨닫고 있다.

오직 은혜 만으로 인한 구원.

하나님의 예정하심.

완전한 타락.

조건없는 택정하심.

효험있는 은혜.

성도들의 보존.

나는 또한 개혁 신앙이 매우 보편화 되었는데, 특히 스스로를 학문적으로 우월한 지성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종교인들 가운데 더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나는 이 메시지를 출판함에 있어서, 내가 많은 사람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은, 이 메시지는 지난 수 개월간 내 마음과 생각 위에 있어 왔다. 그것이 전달되어야만 한다. 내가 여러분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의 혼들의 안녕을 염려하고 있다. 나의 염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위함이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개혁 신앙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개혁 신앙, 개혁자들, 개혁, 그리고 청교도에 대하여 성경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이야기 한다. 나는 그것이 지겹다. 나는 우리 (Danville의 Grace Baptist Church의 모든 사람들)가 개신교가 아니라는 것을 애초에 이해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개혁파가 아니다. 우리는 침례교인들이다. 침례교인들은 단순히 개신교나 개혁파가 아니고, 결코 아니었으며, 그럴 수 없다.

개혁 교리나 개혁 신앙이나, 개혁 신학을 언급할 때, 나는 기본적으로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에 제시된 것과는 같은 장로교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최근 수년 간, 개혁 침례교라 불리는 교파가 일어났다. 실제로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결코 침례교인들이 아니라, 단지 몸을 속이는 장로교인들이다. 그들은 침례를 제외한 모든 방면에서 개혁 신학을 고수하고 있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어떤 신조도 아닌 성경만 믿음을 고백한다. 어떤 허울뿐인 우월한 분위기가 아닌 단순히 사실의 문제로서 말한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실행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언급하였듯이, 이 메시지는 최근에 내 마음 속에 상당히 자리잡고 있어 왔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장로교와 개혁 침례교에서 교리적 표준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들-The Westminster Confession과 The 1689 Baptist Confession-을 조심스럽게 연구해 왔다. 여러분은 그것들 속에 교묘하게 포장된 이단성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무관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들은 복음에 치명적인 문제들이다.

은혜와 행위를 결코 섞지 말아야 할 중요성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를 어떤 정도이든지 혹은 어떤 점이든지 섞은 그 어떤 가르침도 은혜로 만으로, 믿음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구원을 철저히 부인한다 (롬 11:6).

- **로마서 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주: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다. 이 고백들 안에 제시된 틀에 부합되지 않을 장로교인들과 개혁 침례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논하려 하는 이단을 믿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나는 개혁 교리의 다섯 가지 미묘한 이단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고자 한다. 나는 허수아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러뜨릴 것이다. 나는 그런 속임수 실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둔다. 나는 그들 자신의 고백에서 그들 자신의 말을 주어진 그 맥락과 순서대로 가져다 제시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개혁 침례교들은 실로 단지 몸을 숙인 장로교들이다. 그들은 실로 장로교들이 되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다만 유아 침례를 정당화하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실제로, 오늘날 개혁 침례교에 의해 채택된 1689년 신앙 고백은

침례의 주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Westminster Confession (1646)과 거의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무엇을 다루기를 선호한다. 이 교리 혹은 그것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기 보다,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니골라당에 대하여 경고 하셨고, 바울은 유대교인들에 대하여 경고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분명하게 이단과 이단자들을 구별할 필요가 때로는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내가 이야기 하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여러분이 경고를 받아야 할 개혁 교리의 다섯 가지 이단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 소책자를 내려 놓을 때, 나는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것들을 실행하고, 그것들을 믿거나, 그것들을 행하는 것들에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하기를 거절해야 하는지 알기 원한다.

1. 필연적 결과의 이단
2. 조건부 은혜의 이단
3. 자기의의 확신 이단
4. 율법주의 이단
5. 성찬중시주의 이단

필연적 결과의 이단

아마도 당신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할 것이다. "도대체 필연적 결과의 이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법이라는 교리, 즉 그것은 말하자면, 성경에 기

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추론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개신교 신학의 첫 번째 커다란 오류이다. 개혁주의자들은 더욱 더 많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로마 카톨릭교의 잔재를 지속하였다.

1689 Baptist Confession에서 우리는, "그분 자신의 영광과 구원과 사람들의 믿음과 생명에 불가결한 모든 것들에 관련한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적 합은 명시적으로 세워져 있거나 절대적으로 성경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실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의 판단과 논리에 의해서 보충되어야만 한다.

Westminster Confession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명을 위한 모든 필연적인 것들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전체 결정은 성경 안에서 뚜렷이 제시되었거나, 선하고 필연적 결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추정할 수 있다."

교회와 설교자들을 그들만의 신조와 고백으로 나누도록 하며 그들이 성경보다 위에 그들의 신조와 고백을 붙잡게 함으로써 그들의 전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 필연적 결과의 교리이다.

이 필연적 결과의 교리는 개혁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하찮게 여겨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각 세대 가운데 그들에 의해 필사적으로 지켜졌다. 그것이 없이는, 전체 체계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비이성적인 존재로서 조롱거리가 되며 무지한 이단자들과 함께 취급 받는다². 그것에 대하여 새

² 편집자 John Robbins인, 1993년 1월호, The Trinity Review지 95호에 Michael L. Czapkay의 "Are Baptists Rational"을 보라.

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아연실색할 것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상 투명성과 관련한 문제를 천명한다. 믿음과 실행에 있어 우리의 유일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제하지 말아야 한다 (딤후 3:16-17; 신 4:2; 12:32; 계 22:18-19).

- **신명기 4:2**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 **신명기 12:3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 **요한계시록 22:18-19**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우리는 결코 경배에 속한 교리나 조례들을 고안해 낼 아무런 권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실행하여야 하지, 기록되지 않은 것이나 우리가 추정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성경 안에서 천명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을 믿게 하고, 전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도록 강요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 다른 믿음이나 그 어떤 교리도 믿게 하거나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특정 방법으로 실시되고 실행되는 어떤 교훈이나 어떤 조례의 예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도 여러분도, 그 방법으로 실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자를,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방법이나, 어떤 방법이든 제일 편리한 방법으로 침례를 줄 권한이 없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오직 믿는 자들을 침례 주고, 그리고 오직 잠김으로만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침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과 그 조례가 신약 안에서 실행되었던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조건부 은혜의 이단

나는 사람들이 내가 쉽사리 나의 병마개를 뽑았다고 말하면서 그 말에 반응할 것을 안다. 조건 없는 택정함과 한정된 속죄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전하는 도처에 알려진 그 사람들과 교회들이 조건부 은혜를 가르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감히 누가 제시할 수 있겠는가? 내가 다시 그들의 말로써 보여 주도록 하겠다.

첫째, 의롭게 함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죄인들이 믿음의 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말한다.

Westminster Confession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고 안식하는 믿음은 의롭게 함의 유일한 도구이다"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조건이나 자격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요구한다고 가르친다. Archibald Alexander (1772-1851)는 믿음이 의롭게 함의 조건이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에 앞서 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의미로 기록하였다.

Alexander는 계속하여, "택정함을 입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믿을 때, 그의 믿음이 의를 위하여 전가된다. 그것은 객관적인 의인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의 죄들은, 그 순간에, 용서되며, 그의 인격은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의롭게 받아들여지며, 다른 말로 한다면, 그는 의롭게 된 것이다"라고 이어서 말한다. 그의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의롭게 함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놓았으나, 실제로는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택함 받은 죄인이 믿기 전까지 성취되지 않는다. 그것은 개혁 신학의 좋은 정확한 종합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할 때, 믿음을 칭의의 조건이나 도구로 돌리지 않고, 단지 받는 것임을 선

포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은 의롭게 함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다.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빛을 갹으시고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을 때 성취되고 완료되었다 (롬 3:24; 4:25; 5:8-11; 히 10:10-14).

-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 **로마서 4:25**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 **로마서 5:8-11**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 **히브리서 10:10-14**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발

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에게 준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만을 그의 구원자와 구속자로 바라보게 하심이며, 복된 그 영이 집행관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그 양심 위에 뿌리고 재판에서 판결문을 읽으며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믿는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으며, "그는 우리의 범죄함들로 인하여 옮겨졌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셨다. 따라서 의롭게 됨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게 된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됨의 복된 평강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크나큰 속죄의 희생물로서 의롭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완료된 역사의 많은 유익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유익들 가운데 하나는 칭의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도록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것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평강을 얻으며, 심지어 완벽한 평강과 완전한 칭의를 받는다.

믿음은 하나님께 칭의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은 칭의를 받는다. 믿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기초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은 칭의를 받는 도구이다.

믿음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공로가 아니다. 믿음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에 대한 공로가 아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에 대한 공로가 아니다. 믿음은 칭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칭의에 대한 공로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판결과 아들 하나님의 죽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함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선포로 양심의 법정에서 의롭게 된다.

성경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거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목적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그분이 순종하심이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가된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것은 그 자체가 완전하게 의로워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자격을 갖고 있다.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롬 5:19).

로마서 4:25-5:1에서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전가된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의의 칼날 위로 옮겨지셨다. 일단 그가 그분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들을 위한 공의를 만족시

키시면, 그는 우리의 의롭다 함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켜 지셨다. 그의 부활은 죄에 대한 그 한 분의 희생이 그 백성을 위하여 공의를 영원히 만족시키셨으며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없애 버리셨다는 하나님의 공표였다. 이제, 각각의 선택받은 죄인은 그 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강, 곧 완벽한 평강과 영원한 칭의까지도 받는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칭의의 평강을 받는다.

개혁 교리는 또한 성화를 개인적인 거룩의 조건적이며 점진적인 도달로 만든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한다고 가르치는 사람과는 언쟁할 것이 없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 만약 당신과 내가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헌신 안에서 성장한다. 만약 성장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천명한 점진적 성화에 대한 개혁 교리에 격렬히 반대한다.

한편으로 “부패의 그루터기가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깨달지만, The Westminster Confession은, “유효하게 부름 받고 거듭난 자들은, 그들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이 피조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는 그분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실재적이고 개인적으로 더욱 거룩하게 된다. 죄에 속한 몸 전체의 지배는 파괴 되었고, 얼마간의 욕정은 따라서 더욱더 약해지고 극복되며,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들

가운데, 참된 거룩을 실행하기까지 더욱더 소생되고 강해지며,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The 1689 Baptist Confession 은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이단적 주장을 천명한다. “이 개인적 성화의 역사는 실로 더 많은 것을 가져오게 된다...죄의 지배는 완전히 부서졌다...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의 충만을 향하여 움직이면서...악한 욕망은 점차적으로 약해진다.”

우리의 성화가 우리에게 달렸거나, 개인적인 은혜에 속한 부지런한 수양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점 덜 악하게 만들고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마침내 아무도 주를 보게 되지 않게 됨이 없는 그런 거룩함을 얻게 되도록 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귀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요구한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보지 못할 거룩(히 12:14)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만족은 은혜의 삼중역사-신의 은혜나 우리의 노력의 역사가 아니라 순전하고 대가 없는 은혜로만의 역사이다!

1.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시기 위하여 구별되었을 때 영원한 택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다(유 1).
 - **유다서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
2. 하나님의 택정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고 그분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을 때 (거룩하다 선포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성화되었다(히 10:10, 14).
- **히브리서 10:10**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 **히브리서 10:14**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3. 각각의 선택받고 구속받은 죄인은 새롭고 거룩한 본성이 주어졌을 때 새로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벧전 1:2; 벧후 1:4; 요일 3:6-9).
- **베드로전서 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 **베드로후서 1:4**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 **요한일서 3:6-9** "(6)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8)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
-

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9)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다. 실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화이다(고전 1:30).

믿는 자의 성화는 그의 칭의보다 그의 행위들에 더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만약 성화가 구원에 필연적이라면 (그리고 그렇다), 그런 성화가 사람의 노력에 달렸다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누구든지, "구원은 은혜로만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각각의 선택받고 구속되고 거듭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다는 것이다.

자기의의 확신 이단

자기의의 확신에 대하여 말할 때, 개인적 거룩의 추정에 기초한 확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개혁 신앙고백을 충분히 인용할 시간이나 갈망이 없다. 그러나 Westminster와 1689 신앙 고백 모두 구원의 확신이 개인적 순종에 의해 얻게 되고 불순종에 의해 잃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얻게 되고 성령을 비탄스럽게 함으로 잃게 되며, 사람의 마

음의 만족한 시험에 의해 얻게 되고 불만족한 시험으로 잃게 되는 것이라고 확언한다.

그것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 21:17)라고 말할 때의 경우와는 달랐다. 다윗의 확신은 그의 개인적인 거룩에 기초하지 않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시 32; 51; 롬 4:8).

성경적 확신은 믿음의 확신이지 증거의 확신이 아니다(히 10:22; 11:1; 요일 5:9-13).

- **히브리서 10:22**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총명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 **히브리서 11:1**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요한일서 5:9-12**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참된 믿는 자들은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구한다.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 가르침 받으며, 거룩하지 않고 세상적인 정욕들을 부인한다. 그들은 냉정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이 악한 현세상 가운데에서 율법과 심판의 두려움과 보상의 약속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만을 받는 채무자들이라는 사실로 자극받으며 살기를 구한다.

정직한 사람들로써,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코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거룩때문에 확신의 평안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최선의 거룩이 누더기 냅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사 64:6). 우리 최선의 사랑은 대수롭지 않다! 우리 최선의 믿음은 불신으로 충만하다! 우리의 가장 거룩한 생각들은 죄의 구역질나는 부패함으로 충만하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

믿음의 확신은 개인적인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가된 의에 기초한 확신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지혜로, 의로, 성화로, 그리고 구속으로 신뢰하는 빈손의 죄인들로서 지속적으로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나온다. 다윗과 베드로처럼, 우리 확신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에 기초한다.

율법주의의 이단

내가 알고 있는 이단 중에서 믿는 자들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아래 여전히 있을 것과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바치게 하며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이 생과 내생에서 받을

징벌의 잣대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악하며, 더 많은 어려움들을 일으키고, 더 많은 황폐함을 조장하며, 더 노골적으로 성경말씀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 없다.

개혁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도록 하겠다. 기억하라, 나는 그들이 뜻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확히 그들이 말하는 것이다.

Westminster Confession은, "도덕법은 다른 사람들처럼 의롭게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를 영원히 매어둘뿐만 아니라, 순종에 이르게 하며 따라서...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 주며, 그에 따라서 행하도록 그들을 지시하고 구속한다...그런 위협은 그들의 죄들이 당연히 받을 것과 이 생에서의 고난이 그들에게 기대될 수 있는 것과, 비록 저주로부터 자유로우나 그로인하여 율법 가운데 위협을 받을 것을 보여준다. 그 약속들은,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그로인하여 행한 것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축복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한다.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일과 관련해서 듣게 된다. "이 안식일은 그들의 마음을 마땅히 준비한 후에 주께 거룩히 지켜야 하며,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그들의 일과 말과 세상적인 일과 여흥에 대한 생각들로부터 하루 모두를 거룩히 안식함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경배로서 대중적이고 사적인 실행가운데, 그리고 당연하고 자비의 의무 가운데 모든 시간이 드러져야 한다."

이것이 개혁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나는 율법과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지 여러분이 읽어볼 것을 단순히 요구하겠다. 이것은 성령 하

나눔께서 영감의 책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다(롬 6:14-15; 7:4; 8:1; 10:4; 갈3:13, 24, 25; 딤펢전 1:8-10; 골 2:16-17).

- **로마서 6:14-15**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 **로마서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 **로마서 10: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 **갈라디아서 3:24-25**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 **디모데전서 1:8-10**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 **골로새서 2:16-17**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내가 어떤 종류의 해설도 하지 않은 채 이 성경 말씀들을 그대로 읽으면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그 가운데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생각을 확신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옮겨졌다.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뿐이다(롬 3:31).

- **로마서 3:31**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각 사람의 두 가지 것들을 요구한다. 의와 성화.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고, 시인하고, 지속하며,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드리는 것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대

신한 모든 총만한 대속물로서 율법의 의를 총만케 하였고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실질적인 반율법주의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총만한 삶을 율법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노력으로 그들 자신을 의롭다 하고 위로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끌어내린다.

그것은 율법을 존귀히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율법을 치욕스럽게 하고 파괴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함으로써 감사와 사랑으로 감동받는다(고전 6:19-20; 요일 3:23).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까봐 두려워서, 혹은 그분으로부터 보상 받을 것을 소망하여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귀한 아들을 희생하셨을 때 그분의 공의의 총만한 만족에 이르도록 우리의 죄들을 심판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려고 사랑 가운데 체벌하시지만, 우리를 결코 다시 벌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용병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복된 안식을 제외하고 그 어떤 안식의 쉼을 지키지 않는다(히 4:9-10).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찮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감을 받은 사도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되었다(골 2:16).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안식, 믿음의 복된 안식에 대한 그림이며 예표였다. 그분께 나올 때, 믿는 죄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일하는 것을 멈춘다. 우리는 우리 거룩한 주 하

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그분 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

성찬 중시주의 이단

개혁주의 교리는, 다시 로마의 옷을 유지하면서, 침례와 주의 만찬이 경배의 의식보다 성례라고 가르친다. 성례는 그것을 받는 자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종교적 의식 혹은 의례이다. 성찬식은 단순히 은혜로운 상징적 그림이다.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장로교 교리는 침례, 곧 그들이 부르는 것인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은 그것을 받는 자에게 은혜가 전달되고 인침을 받는 성례라고 가르친다.

"성만찬은 거룩한 표징이며 은혜의 약속의 인침이다...침례는 신약의 성례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명령되었고, 가시적인 교회 안으로 침례받는 편의 확고한 받아들임을 위함뿐만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에 속한 약속의 표적과 인침,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거듭남과 죄들을 사면받기 위함이다...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을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 혹은 모두 믿는 부모의 유아들이 침례받아야 한다."(Westminster Confession). 고백은 침례라는 말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인과 그들의 믿지 않는 유아들에게 행해지듯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으로 침례가 함당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둘 모두에게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끔찍하게 악한 이 교리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여기에는 완곡하게 표현할 여지가 없다. 만약 이것들이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었다면, 나는 결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소책자를 출판하는 결과로 이르도록 스스로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아 세례 교리와 침례로 물을 뿌리는 손쉬운 교리는 끔찍하게 악한 것들이다.

유아 세례나 물뿌림 같은 것에 대한 성경의 계율이나 전례가 없다. 어떤 유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나 그 사도들 혹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도 침례를 받는 예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없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그것은 교황의 주교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보다 더 성경적 뒷받침이 없는 종교적 의식이다!

물뿌림을 받은 아기는 거듭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아이는 침례를 받음으로(물로 뿌림을 받고) 안전하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물뿌림을 받는다. 훗날 그렇지 않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아이는 교회 안에서 정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거듭났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물뿌림은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와 능력의 효험있는 짝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아무도 거듭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침례는 결코 어느 누구를 은혜의 언약에 인치거나 언약의 은혜를 그 어떤 사람에게 인치는 것이 아니라고 듣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인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엡 1:13-14; 4:30). 할례는 성경에서 침례와 결코 비교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침례를 묘사하거나 예표하지 않는다.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골 2:11)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함 안으로 데려가고 그리스도 안

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인친 거듭
남을 예표하였다.

유아 세례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적 혈통에 의해 죄인들에
게 흘러들어가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결코 사람의 세
상 혈통과 연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요 1:12-13; 롬
9:16).

- **요한복음 1:12-13**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유아 세례 교리는 또한 회심에 대한 성경 교리를 파괴한다. 거듭
남의 전제 아래 성장한 아이는 회심을 체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 아이는 변화될 것이 없고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 없다. 그
아이가 작은 아기였을 때 몇 방울의 물로 모두 처리되었다고 전제
된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엄청나게 끔찍한 운명을 전
제하고 있다!

침례는 오직 믿는 자에게 물에 잠기는 것으로만 행해지도록 한 신
성한 경배 의식이다(행 8:36-39).

- **사도행전 8:36-39**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
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
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
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
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시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그것은 복음의 그림이다. 침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는 빌립이 내시에게 요구했던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복음 전체의 그림이다. 믿는 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들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서 받아들여진다. 침례로 우리는 모든 세상에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우리 구주로서 신뢰함을 고백한다.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물속 무덤에서 부활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새롭게 함과 마지막날 부활의 복된 소망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될 우리의 결의를 선포한다. 따라서, 침례는 언제나 장사로서 대표되고 이야기 된다(롬 6:46; 골 2:12).³

장로교나 개혁 침례교는 1689 Baptist Confession에 따라 주의 만찬을 성례로 만든다. "합당한 참여자들로서, 이 성찬식에서 가시적인 빵과 포도주를 외적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받고 먹으며,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유익을 받는다."

³ 나는 침례라는 말을 때로는 컵이나 접시들을 씻는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뿌림" 혹은 "부음"이라는 의미라고 입증하려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을 애써 행하지 않겠다. 얼마나 허튼소리인지! 침례 의식은 접시를 씻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의식이 묘사될 때마다 그것은 "장례"로 불려진다 (롬 6:4-6; 골 2:12).

그것이 신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전 11:23-29).

- **고린도전서 11:23-29**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 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그를 기억할 뿐이다. 빵은 단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신비롭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똑같이 포도주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우리 구주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존경스러운 경의와함께 기억한다.

주의 만찬은 은혜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은혜가 어떻게 죄인들에게 전해지는지의 외적 표적을 보여줄 뿐이다. 각각 믿는 자가 빵과 포도주를 자신을 위하여 취하듯이, 죄인들은 스스

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취하여야 한다. 그분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데려올 수 없다. 일단 여러분이 빵과 포도주를 취하며,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다. 그렇다 할 지라도, 여러분이 일단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의 소유이다.

주의 만찬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음을 전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목적이다. 빵이 여러분 앞에서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간몸이 하나님의 공의의 바퀴 아래 죽음으로 부수어졌다. 포도주가 포도를 짜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음 가운데 그분의 몸에서 짜내어졌다.

주의 만찬에서, 침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식에 참여할 가치가 있게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며, 주의 몸을 분별함이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가치가 있게 만드는 분은 항상 그리스도이다!

이것들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라.

1.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과 실행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척도다.
 2. 구원은 우리에게 맞추어진 어떤 종류의 행위나, 조건이나, 자격들이 없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없는 은혜에 의해서이다.
- **고린도전서 1:30-31**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

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를 사랑할지니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니라."

3.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는 율법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하게 자유 하다.
-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
 - 그 언약으로부터 자유함!
 -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에 인치실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걸어 갈 수 있도록 보장하실 것과 다시는 종교적 전통의 노예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아멘.